

익산 중앙시장 주차장 연내 조성

전통시장 · 상점이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 선정... 사업비 45억원 투입

익산시 중앙시장 주차장이 더 편리하고 쾌적한 모습으로 재탄생한다. 익산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도가 추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을 확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총사업비 45억 원(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60%, 시비 40%)을 투입해 현재 54면 규모의 주차장을 94면으로 40면 증설할 계획이다.

앞서 중앙시장 이용고객과 상인 주민들은 만차 상황이 잦은 주차장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왔다. 시는 이 같은

불편 해소를 위해 정부 공모사업에 나서 서류심사와 현장평가 최종 선정 협의회 심의를 거친 끝에 국비 확보에 성공했다.

시는 이번 사업이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삼각형이던 주차장 형태가 부지 추가 확보를 통해 사각형으로 바뀌며 북쪽쪽던 주차 동선이 개선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차량이 들어가는 곳과 나가는 곳이 각각 따로 조성되면서 기존 통합 진·출입으로 인한 불편이 해결될 전망이다.

시는 올 상반기 토지매입과 설계 용

역을 마치고 하반기에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차장 개선이 완료되고 나면 청년몰과 야시장 등 중앙동 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소철 소상공인과장은 "적극적인 주차 환경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전통시장을 만들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로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설립 20주년을 맞아 10일 오후 산학협력관 2층 이노테크홀에서 산학협력 성과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지역사회 동반성장 주도하는 협력 · 혁신의 중심”

국립군산대 산학협력단 설립 20주년 산학협력 성과 보고회 개최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설립 20주년을 맞아 10일 오후 산학협력관 2층 이노테크홀에서 산학협력 성과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산학협력단은 2003년 12월에 설립되어 초대 단장인 김인찬 교수를 비롯하여 현재 재임 중인 장민석 산학협력단장까지 총 11명의 교수가 국립군산대 산학협력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명의 인력으로 시작하여, 설립 20주년을 맞은 지금은 277여 명의 직원과 약 678억 원 규모의 예산을 운용하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20년간 BK21 사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기술혁신기반,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RIS)사업, 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 등 각종 정부 지원사

업에 선정, 지역과 대학의 산학협력 생태계 구축에 큰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날 행사에서는 장민석 산학협력단장의 산학협력단 추진 성과 및 비전 발표와 함께 역대 산학협력단장 감사패 수여, 우수연구자 시상, 우수직원 표창 수여가 진행됐다.

장민석 산학협력단장은 “우리 산학협력단은 지난 20년간 지역사회와 대학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면서 “앞으로 지식연원 협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미래 신산업 산학협력 체계 고도화 등을 통해 지역혁신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리더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장우 국립군산대 총장은 “과거에는 산학협력단의 역할이 연구 및 사업비 관리 위주였다면, 지금은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을 주도하는 협력과 혁신의 중심이 되었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기자

익산 천마부대, 전군 최초 차단벽 구조 사격장 준공

금마면에 사격장 신규 조성 이전

익산에 전군 최초의 차단벽 구조 사격장이 들어서며 지역 상생의 물꼬를 튼다.

11일 익산시 금마면에서 박인수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차단벽 구조 사격장 준공식이 열렸다.

익산시에 따르면 이번 사격장 이전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인근 주민 불편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앞서 시는 민원을 제기한 기존 사격장 인근 주민들과 사격장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협의했으나 결국 사격장을 이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2년여간 진행된 공사에는 90억 원이 투입됐다. 새로운 사격장은 길이 224m, 폭 46m, 총면적 3만 9,702㎡(1만 2,049평) 규모로 조성됐다. 이는 군 사격장 중 처음으로 차단벽이 둘러진 사격장으로 소음을 차단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나타낸다. 실제 시범 사격 결과 사격장 100m 밖 지점에서는 총격 소음이 73dB, 400m 이상 지점부터는 40dB 이하로 측정됐다. 사격장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은 1km 가량 떨어져 있는 데다, 아파트 층간 소음 기준이 주간 45dB(야간 40dB)임을 고려하면 소음 민원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바위나 단단한 물체에 맞고 튀어 날아간 총탄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파탄지역에 별도 탄두 회수 시설을 설치해 사격 후 탄두를 모두 회수할 수 있어 중금속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는 부대 측의 설명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사랑장학재단, 다자녀 가구 장학 혜택 확대

익산시가 다자녀 가구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자녀 장학혜택'을 신설한다.

(재)익산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정현율)은 5자녀 이상 가구의 대학생에게 장학금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선발대상은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다섯 자녀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이다.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성적 자격도 다른 장학사업에 비해 기준을 완화했다.

신입생은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성적이 평균 60점 이상이고, 기존 재학생은 직전 학기 평균 학점이 2.5 이상이면 된다.

장학금은 학기당 100만 원으로, 4학년까지 한 사람당 최대 8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누리집에 오는 2월 상반기 모집공고를 올리고, 3월부터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장학금 선발 심의를 거친 뒤 4월 중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재단은 5자녀 이상 가구 학생들이

빠짐없이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동과 학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정현율 이사장은 “다자녀 가구 학생들이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덜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자녀 장학금 사업을 시작한다”며 “앞으로도 다자녀 가정에 대한 최적의 교육환경 제공으로 자녀 키우기 좋은 익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차지원 대학원생 확대

군산시(시장 강임준)가 대학생에게 지원하던 학자금대출 이차지원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차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같이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청년실업 증가에 따른 사회적 고통을 분담하고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1월 9일) 기준 군산시에 주소록 둔 전국 대학 및 대학원 재(휴)학생으로 지원금액은 한국장학재단에서 2016년 이후 대출받은 등록비 및 생활비의 이차 중 2023년 하반기에 발생한 이차 전액이다.

이번 사업은 1월 15일부터 2월 19일까지 군산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또는 시청 교육지원과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받으며,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재(휴)학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대학생의 대출금 이차액을 확인해 5월 중 한국장학재단 측에서 학자금 대출계좌로 지원금액을 상환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원 내역은 한국장학재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필 교육지원과장은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관내에 주소록 두고 있는 모든 고등교육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지역 섬유 석재업체 살리기 나서

익산시가 향토산업인 섬유·석재 분야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익산시는 지역 섬유·석재 업체를 대상으로 7억4,000만원 규모의 환경시설 개선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섬유업체의 경우 노후 기계 교체와 근로자 복지 편의 증진 등 환경·시설 개선에 업체당 최고 1,5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이달 31일까지 시 기업일자리과(활성화팀)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석재업체는 △환경·시설 개선 최대 1,000만 원 △환경피해 저감 시설 최대 5,600만 원 △석분폐기물 운반비 최대 100만 원 등 분야별로 차등 지원된다.

/*익산=이재훈기자



군산시립도서관, 범죄심리 박지선 교수 초청 강연

군산시립도서관은 오는 24일 오후 7시에 송명여대 사회심리학과 교수이자 범죄심리학자인 박지선 교수를 초청해 '현대사회의 이상심리와 범죄'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박지선 교수는 서울대에서 심리학 전공 후 리버풀대학교 수사심리학, 서울대학교원 심리학 석사를 거쳐 뉴욕 시립대학교에서 심리학 박사를 취득했다.

또한 경찰대 교수 및 법원 전문심리위원, 대한 범죄학회 이사 등을 거쳐 송명여대 사회심리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SBS '그것이 알고싶다', '궁금한 이야기 Y', KBS '추적 60분', tvN '말쓸법집', '유퀴즈온더블럭' 등 다수의 방송에 출연, 대중들과 활발히 소통 중이다.

이번 강연에서는 현대사회에 생기는 다수의 범죄가 발생하는 이유 및 범죄자의 이상심리 등을 다방면적으로 분석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